



구름다리 작은도서관

#광주 광산구 #시설공사비 지원

책이 다리가 되어 좋은 곳으로 연결하여 준다.

‘구름다리’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2012년 기존의 문고형태의 도서관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주민공모를 통하여 짓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활동가, 이용자, 주민 모두가 구름다리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좋은 경험들을 하길 바랍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한 문턱이 낮은 도서관

구름다리 작은도서관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호반2차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4개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오전시간에는 어른들의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간이고, 오후에는 방과 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책도 읽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구름다리 작은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하여 도서관 입구에 위치하여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지원비로는 부족하여 자부담(호반2차아파트 입대회의 협조)을 추가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래도 깨끗해진 화장실을 보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집니다.



이용자들도 모두 흡족해합니다. 도서관 내부적 회의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와 함께 했던 여러 번의 회의와 검토, 선택, 긴 공사의 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이용자는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맞는 변기와 세면대가 생겨서 좋다고 해요. 어른 이용자들은 냄새가 안 나서 좋다고 하십니다. 어두웠던 내부가 저녁에도 밝아서 이용이 편리하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어두침침한 화장실을 보며 무섭다고 했던 어린이 이용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좋습니다. 여름철, 장마철이면 지독하게 풍기던 냄새며, 그 냄새를 잡기위해 더 지독하게 풍기던 락스 냄새가 사라진 것도 좋다고 합니다. 어두침침한 화장실이 도서관 입구에 위치해있어서 도서관에 오갈 때 외관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좀 더 편안한 공간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한결 쾌적해진 구름다리에서 보냈던 평범했던 일상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가기 전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먼저 찾는 아이들은 오후가 되면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간식거리가 있을 때, 작은 것 이지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그랬던 2017년의 날들이 생각납니다. 2018년도 아이들과 나누고 함께 행복한 일상들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구름다리작은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꿈쟁이들에게 행복한 화장실을 만들어주기자 2017년에는 긴급지원119사업을 통해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한층 더 편안한 공간이 되었고요. 2018년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누구나’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름다리 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아파트 내에 위치하였다는 한계를 벗어나 주변 아파트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 달 새로운 책을 구입, 비치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역할과 함께 공동체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겠습니다.

